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통한 미용분야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윤미연**

기술적인 창업이 용이한 미용분야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국내·외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과 ‘창업’ 키워드와 연관되는 키워드를 출현 빈도수에 따라 추출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대학의 창업프로그램 강화 피이드백 루프, 2. 도전정신 강화 피이드백 루프, 3. 기술능력 균형 피이드백 루프를 통해 선순환 되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용분야 대학생 창업의도 향상과 창업 활성화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용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취업 위주의 교육에서 창업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용학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이 높아짐으로써 창업에서 꿈을 찾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대학생의 창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창업, 대학생, 창업의도, 창업활성화, 시스템다이내믹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6093).

** 제 1 저자, 동남보건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교수(dec1579@naver.com)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을 비롯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기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게 되고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경제력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청년실업률이 8.9%, 청년 실업자가 38만 6천명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21). 따라서 청년실업률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증가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이재석, 2015). 그러나 창업을 단순하게 취업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거나, 창의적인 아이템이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없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창업을 시작했을 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창업 의지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이 수반되어야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내 창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의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학과별로 전공 관련 창업교육은 창의적인 제품 생산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 국가표준직무(NCS) 기초직업능력에 해당하는 문제해결, 자기개발 등의 교과목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1.04.30. 제6차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하였다. 이어 미래 혁신인재 양성 및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속 육성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4대 전략별 주요 내용 중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전략이 포함되었고, 여기에 20개의 세부 과제가 들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단계별 창업교육과정 제공 및 학생의 창업 도전 장려, 비대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손주기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교육부 2021.04.30.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항노화와 직결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생활 수준과 소득의 향상으로 미용을 통해 외모를 가꾸는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뷰티 산업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 미용업은 기술창업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각각의 미용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술력만 갖추면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여 창업교육 없이 쉽게 창업을 하게 되면서 미용업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갖추지 않은 채 피부미용업 및 일반 미용관련 산업체가 늘어난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반드시 갖춘 후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장체험형 학습은 창업스킬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장지식과 정보, 숙련된 기술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김용태, 2021) 현장성이 중시되는 미용분야의 경우 이러한 현장체험형 창업교육이 더욱더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기술적인 창업이 용이한 미용분야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국내외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변수를 도출

하고, 이러한 변수들의 인과관계 규명 및 창업의도에 필요한 거시적인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조사설계

1. 선행연구 검토

창업의도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Krueger(2000)는 조직에 수동적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용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창업을 향한 의지와 열망으로 표현하였다.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실행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을 실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의도가 적극적으로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용태, 2021). Bird(1988)는 “잠재적인 창업가로서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몰입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하였다.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조한준 외(2020)는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강선자·변상해(2017)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하규수·윤백중(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실패요소가 창업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미숙·김영국(2012)은 광계열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과 교육 및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허병준·이형용(2021)은 기업가정신과 업무의 만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변수들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들과 창업의도

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뷰티분야 대학생의 창업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가 미미했던 뷰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분야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내·외 논문들(최영출, 2017; 최영출·김학실, 2019; 장지현, 2017; 김동환·김현식, 2004)을 참조하여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들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통해 파악하였다. 대학의 관심과 지원, 개인의 여건과 능력, 정부차원의 지원,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주요 변수와 그에 따른 세부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뷰티분야 대학생의 창업 의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2. 조사설계

1) 분석대상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 그동안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국내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KRI 논문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기간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키워드는 ‘대학생’과 ‘창업’이 논문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외논문은 SPRINGER 출판사의 관리대상 저널 145개를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기간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키워드로는 ‘entrepreneurship’과 ‘startup’이 논문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국내·외 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한 논문들로부터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들 및 이들 키워드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연관 키워드를 변수로 하여 피이드백 효과를 반영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J.Forrester가 발전시킨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사용하였다(장지현, 2017; 장지현, 2019; Cho, Yong-Lan, 2020). 이러한 관계를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로 연결하고, 인과지도를 통하여 피이드백 루프 탐색-정책지렛대 탐색을 실시하였다.

III. 분석결과

1. 국내 문헌 키워드 연결망 분석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KRI 논문들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게재된 논문의 제목에 ‘대학생’과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연관된 키워드가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핵심단어의 출연 빈도에 따라 영향, 교육, 의지, 의도, 기업가, 결과,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국내문헌 워드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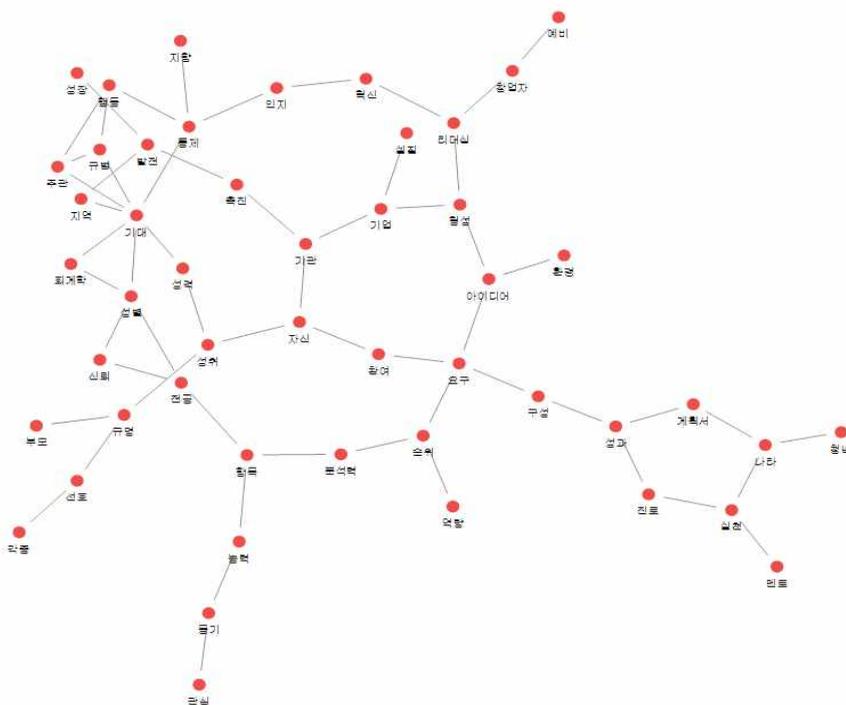
〈표 1〉 국내문헌 키워드 빈도 분석

키워드 순서	키워드	출현빈도
1	창업	546.0
2	대학생	238.0
3	영향	146.0
4	교육	97.0
5	의지	94.0
6	의도	75.0
7	기업가	67.0
8	결과	67.0
9	요인	64.0
10	정신	46.0
11	대학	43.0
12	효과	42.0
13	대상	41.0
14	지원	39.0
15	중국	39.0
16	정책	37.0
17	역량	37.0
18	특성	36.0
19	행동	34.0
20	변수	34.0
21	관련	34.0
22	관계	34.0
23	계획	33.0
24	효능감	31.0
25	취업	31.0
26	전공	31.0
27	검증	29.0
28	프로그램	28.0
29	중심	27.0
30	사회	27.0
31	필요	26.0
32	사업	26.0
33	개발	26.0

대학생과 창업과의 연관된 단어는 창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 창업의지, 창업의도 등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변수들로 나타났으며, ‘대

학생'과 '창업'과 연관된 단어는 49개로 축약할 수 있다. 키워드 간 연결 관계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국내문헌 키워드간 연결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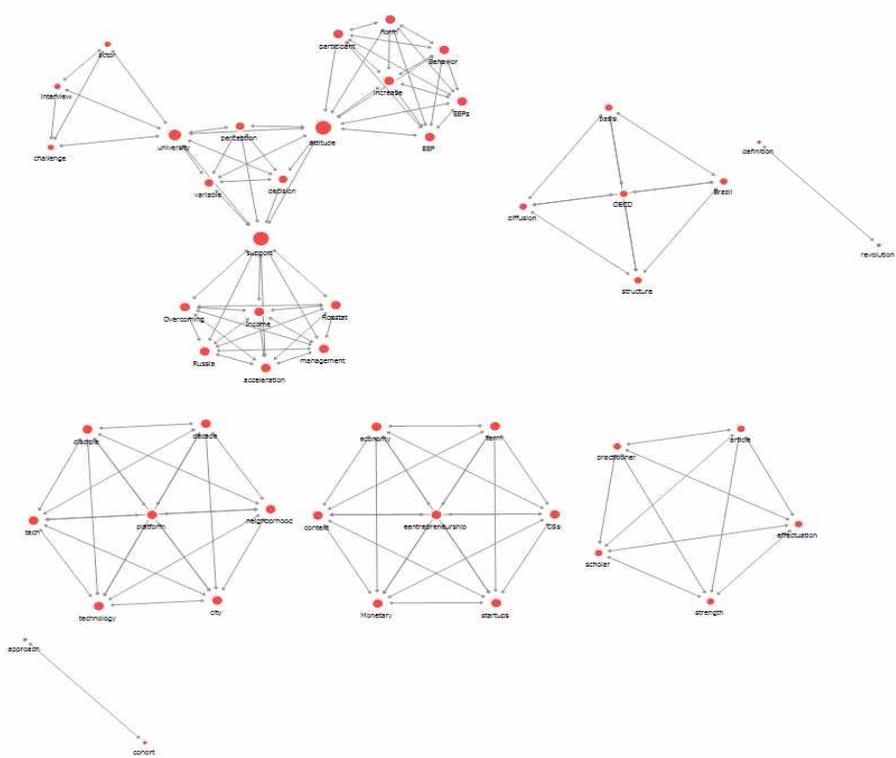
2. 국외논문 키워드 분석결과

국외논문은 SPRINGER 출판사의 관리대상 저널 145개를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서 'entrepreneurship'과 'startup' 키워드가 논문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다. 연관된 키워드 빈도에 따라 university, business, country, city, activity 등으로 나타났다<표 2>

14	support	5.0
15	intention	5.0
16	framework	5.0
17	eentreprenurship	5.0
18	economy	5.0
19	attitude	5.0
20	unit	4.0
21	student	4.0
22	practice	4.0
23	participant	4.0
24	innovation	4.0
25	factor	4.0
26	effectuation	4.0
27	culture	4.0
28	Education	4.0
29	technology	3.0
30	stage	3.0
31	result	3.0
32	project	3.0
33	program	3.0
34	policy	3.0

키워드 연결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49개의 단어로 축약하였으며, 각각의 단어별로 연결관계망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University와 attitude, support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복잡한 연결관계도를 나타내었다<그림4>.

〈그림4〉 국외문헌 키워드간 연결관계



3. 국내·외 논문 키워드 분석결과 주요변수들 추출 및 설명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대학생’, ‘창업’과 연관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미용분야 대학생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미용분야 대학생 창업의도 주요 변수

영역	세부지표	의미
대학의 관심과 지원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의 질과 양
	창업학점이수	창업학점이수제의 도입과 운영
	창업동아리활동	창업동아리활동의 운영
	교수의 창업지도	교수의 창업지도시스템의 운영
	대학의 재정여건	대학의 전반적 재정여건
	대학의 창업자금지원	대학의 창업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
	비 창업학생들의 반대	창업에 관심없는 일반학생들의 반대 정도
개인의 여건과 능력	가족의 신뢰	가족들의 지지와 신뢰
	자기효능감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
	도전정신	위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정신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
	멘토활용	전문가들에 대한 활용능력과 활용의지
	창업의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창업시도	직접 창업하는 행위
정부차원의 지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정부 정책을 통한 창업지원
	정부의 대학창업지원	정부의 대학창업 지원에 대한 관심
사회적 환경	뷰티협회의 창업지원	뷰티 협회에서 미용분야 창업지원 관심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소비자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도
	미용분야 기술발전 기대	미용분야의 기술 발전의 가능성
	미용분야 창업시도	미용분야에서의 창업을 시도하는 행위
	미용분야 창업 성공사례	미용분야에서의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타 분야 창업성공사례	타 분야에서의 창업 성공 사례
경제적 환경	국내경제환경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환경
	고용율	고용상태 지표
	창업분위기	사회내에서 창업에 우호적인 분위기
	창업성공사례	창업으로 성공한 기업 수
	창업후 지원제도	창업한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제도

4. 인과지도 구성

1) 기본적 인과제도

이러한 변인들을 시스템적 투입과 산출모형에 기반하여 재분류하고 이를 인과지도로 구성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인과지도에 포함되어있는 창업의도 요인들의 관계들을 볼 때, 변수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일부 변수는 받기만 하는 변수도 있고 주기만 하는 변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경제환경 변수에 따라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고, 정부의 창업지원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학창업지원의 증가, 대학의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 상승하게 되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재정여건 나아지면 대학의 창업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의 창업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교수의 창업지도, 프로젝트 학기제 및 창업 휴학제 등 학사제도 개편, 공유대학형 창업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능력 및 도전정신이 고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창업자금 지원은 비창업학생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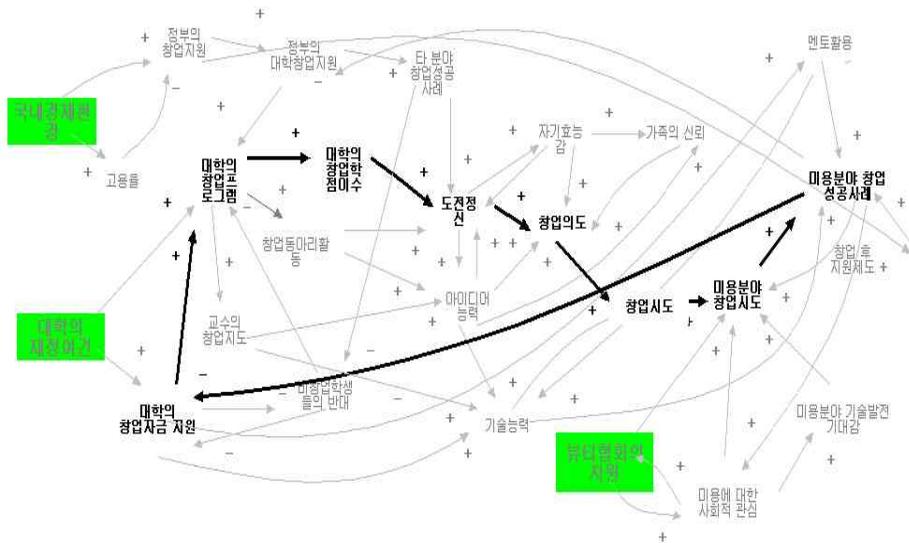
뷰티협회의 지원 변수는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용분야 창업지도와 미용분야 기술발전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미용분야 창업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부산권 6개 LINC+ 참여대학이 기업·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AI 기반 창업마케팅 강좌 개발 등 공유대학을 구축한바 있다.

LINC3.0사업에서는 전문대의 경우 실용기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교육부 2021.04.30. 보도자료).

미용분야 창업의 시도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용창업시도는 곧 미용분야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의 창업자금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시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강화루프의 선순환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부호가 나타나지 않아 강화루프적 성격을 지닌다<그림6>.

<그림6> 대학의 창업프로그램 피이드백 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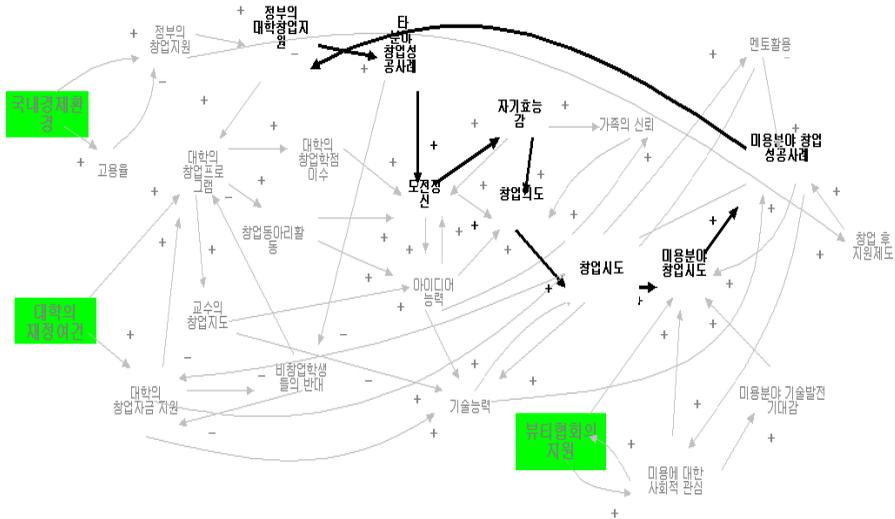


(2) 강화 피이드백 루프 2: 도전정신 피이드백 루프

도전정신 피이드백 루프는 도전정신이 강화되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창업의도를 높이지게 하고,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하게 된다. 창업의 시도는 미용분야 창업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용분야 창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정부에서의 대학 창업지원이 높아지게 되고, 정부의 대학창업 지원이 높아질수록 타분야의 창업 성공사례로 증가하게 되어

다시 대학생들의 도전정신을 상승시키게 되는 선순환 강화구조이다. 여기서 보듯이 대학생의 도전정신은 이 구조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도전정신은 창업의도 강화를 통해 창업의 시도하게 되고, 창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루프 구조에서도 (-) 부호가 나타나지 않아 강화루프적 성격을 지닌다<그림7>.

<그림7> 도전정신 피이드백 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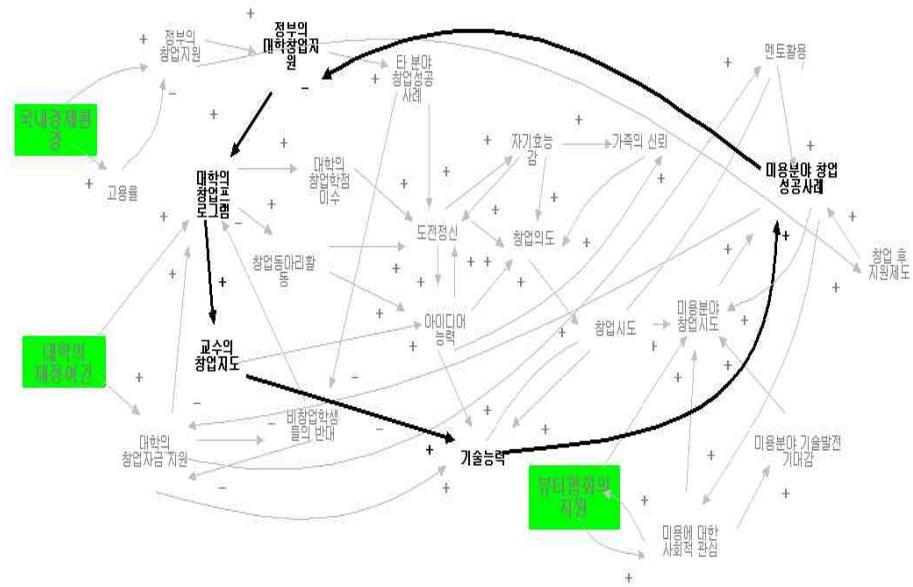


(3) 균형 피이드백 루프1: 기술능력 피이드백 루프

기술능력 피이드백 루프는 기술능력이 높으면 기술창업 분야인 미용분야 창업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이는 미용분야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이 높아지면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교수의 창업지도가 강화되어 대학생들의 기술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 균형구조가 나타난다. 미용분야는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무적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만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는 만

컴, 기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의 창업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루프 구조에서도 (-)부호가 나타나지 않는 균형 루프적 성격을 지닌다<그림8>.

<그림8> 기술능력 피이드백 루프



IV. 정책적 함의 및 맺음말

앞 장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을 통해 추출한 변수들 간의 상호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창업의 성공을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와 창업교육 등을 미용분야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 차원의 창업지원제도 개선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창업학점 이수제를 도입하여 운영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여 창업의도를 강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 성공사례를 통해 도전정신을 함양하여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무영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교수의 적극적인 창업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에 필요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원생이 또한 졸업 후 진로와 학위취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구축하여 창업을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문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하여,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창업 준비만으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용학의 경우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교육을 받아 바로 실무 경험 없이 실전 창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재학생 때나 졸업 직후 실전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창업이 준비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한국대학신문 UNN, 2020.9.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433>)

2. 실무적인 기술창업지도

미용분야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록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미용분야의 개인 맞춤형 관리는 1:1 감염차단을 더

육 중시하게 된 COVID-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고 창업을 했을 경우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학생들은 단순히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래야 졸업과 동시에 기술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수의 올바른 창업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3.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융복합 교육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창업의 실패는 창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중장기적으로 창업교육의 확실한 목적과 교육의 효율성 및 성과 등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창업을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잠재적인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직업을 개발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론 중심적인 강의보다는 체험식 실습학습 방법이 강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융합 교육은 융합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창의·융합 관련 교과목 수강을 통해서도 창의융합역량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이 표준화 되어 있는 지식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념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노지운·이상엽·노영희, 2019). 뷰티케어분야 창업의 경우 특히 융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전공 계열 교양과목 형태로 상상과 창의성, 통합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이 필요하다

(Lee, Sang-Yup, 2019: 66).

창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학습자의 개인적 동기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창업교육 전문가들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창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기초로 창업교육에 관한 과목을 설계해야 한다(Shapero & Sokol, 1982).

그동안 창업 교육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관련 강좌 중 이론 중심적인 창업강좌가 대부분이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안 작성,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의 시뮬레이션 등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창업 강좌가 전체 창업관련 강좌 중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학교기업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학교기업을 예비 창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기존 창업교육자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여 실습강좌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완성형 창업 강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교육에서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강의는 공유형으로 수강하고, 토론과 학생 수준별 보완교육은 각 소속대학의 교수들이 분담하도록 한다(Cho, Yong-Lan, 2020).

4. 공유대학형 스마트 뷰티케어 교과운영

최근 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구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다양성, 고등교육의 대중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학습 등의 변화로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이상엽, 2021).

현 상황에서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대학 간 각자의 강점 분

야를 인근대학 또는 관련 전공 대학 간의 통합 및 연합하여 각 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낭비를 감소시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출현하게 된 것이 공유대학이다. 공유대학이란, 여러 대학들이 협력해 서로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공유를 기반으로 학점교류, 연합대학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개방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발전 및 세계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영희 외, 2019). 범지구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가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개념을 반영하여 세계 여러 대학들은 공유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노영희 외, 2019).

미용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과목, 뷰티 창업에 필요한 과목, 실감미디어 등 4차산업혁명의 기술 중 뷰티분야에 접목이 가능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동영상 강좌를 개발하여, 각 대학들이 수업에 활용하고, 대학 실정에 맞게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유대학의 형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점교류를 통한 교과목 선택권의 확대, 광역단위별로 취·창업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미용분야에도 AI, IoT, Robot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전문 미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미용분야 학과에 도입해야 한다. 암기나 단순한 개론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상상과 창의성, 통합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Cho, Yong-Lan, 2019). 그러기 위해서는 AI, IoT, Robot 원리 등 이공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들과 관련된 분야와의 융합 교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수업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취업 경쟁을 위해서는 전공 필수 교과목 성적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융합 교과목에 한해서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노지윤·이상엽·노영희, 2019).

4차산업혁명 기술을 창업과 연계하는 수업도 대학 간 공유·협력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 기반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원격수업에 활용되는 LMS와 원격강의를 위한 장비 구축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의 실험실습실과 창업지원공간을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 AR·VR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창업 과목을 대학 간에 공동 개발해야 한다(Cho, Yong-Lan, 2020; 한국대학신문 UNN. 2020.09.0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452>).

5. 뷰티 창업에 대한 가족지지와 사회적지지 확보

창업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창업에 대한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및 공감대가 창업 의도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즉, 인간은 어떤 일을 추진 할 때,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고려하고, 성공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며, 특히 기업가의 주관적 행동양식 정도가 창업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Gnyawali and Fogel, 1994; 권혁·임진혁, 2019). 뷰티 분야 창업의 경우 가족지지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유튜브에 학부모 친화형 대학생 창업교육과 학부모 대상 비대면 창업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6. 글로벌 뷰티 취·창업 활성화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해외에서 취·창업을 유도하기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현지연수 외에는 기대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외에서 다른 부문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지만 비교적 고정투자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 뷰티관련 창업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창업자금이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지의 행정과 규제 문제다. 뷰티관련 기술력만 있다고 덜컥 현지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 초기에 난관에 부딪혀 창업을 접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다음으로 마케팅이 중요하다.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나 네트워킹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쉽지는 않다.

뷰티케어분야의 경우 중국에서의 창업 열풍이 불다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본다. 다만,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의 경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아 근성과 인내가 필요한 동남아 시장에서의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뷰티분야 창업을 원하는 중국 유학생을 한국의 뷰티케어학과 학생과 매칭하여 중국에서 공동으로 취·창업하는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사기관 iiMedia Consulting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뷰티 산업 전체 거래액은 5,784억 8,000만 위안(약 102조 3,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뷰티 산업과 연계되는 것도 중국 뷰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뷰티누리, 2021.08.09).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94193/cat/10>).

AR, VR 기술 등이 화장품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산업은 지능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달리 뷰티케어의 영역이 넓어, 최근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대형 뷰티샵을 차려주는 붐이 일고 있다, 간호조무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 전문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실습을 하는 한국의 뷰티케어학과에서 피부미용학사를 취득한 후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을 뷰티케어학과 학생과 1:1로 매칭시켜줌으로써 상호 밀착도

를 높여 상대국의 어학 실력과 신뢰를 쌓고, 한국의 뷰티 기술을 익히게 할 필요가 있다(충청일보, 2021.08.16.).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970>).

대학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과 유학생을 한 방에 합숙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취·창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멘토-멘티 차원에서 허용해 주어야 한다. 졸업 후 중국에서 공동창업하거나, 룸메이트가 창업을 할 경우 기술책임자로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7. 대학평가에 창업 실적 적극 반영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에서는 창업 기업의 수, 매출을 낸 기업의 수, 창업 강좌 수 등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의 질, 커리큘럼의 우수성 부문 실적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앞으로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지만 만일 이어질 경우 평가지표에 대학의 창업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대학 기본정보 공시에 대학의 창업실적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2022년도 새로 시작되는 LINC3.0 사업의 선정 평가지표에 대학생 창업 관련 지표를 상향해야 한다(Cho, Yong-Lan, 2020).

대학생들에게 창업이 긍정적이고 도전할만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대학생 창업은 활발해질 것이고,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실업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많은 창업 성공사례가 나오게 되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가일층 개선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Cho, Yong-Lan, 2018).).

8. 맺음말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항노화와 직결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으로 미용을 통해 외모를 가꾸

는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뷰티 산업은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

미용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을 익혀 직접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산업 종사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창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의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과 사회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부는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대학생의 창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예측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품질과 적실성 제고가 요망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도를 고취시키는 것은 창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창업은 창업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하고 미래를 책임질 도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미용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취업 위주의 교육에서 창업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용학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이 높아짐으로써 창업에서 꿈을 찾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대학생의 창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자·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pp.85-96.
- 권혁·임진혁(2019). “대학생들의 다문화교육 경험 및 인식과 글로벌 창업의도와 관련된성”, 「한국비교정부학보」, 23(4), pp.107-122.
- 기영화·장지현(2019). “System Dynamics 방법을 적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과정의 인과관계 분석: 강화루프와 균형루프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23(4), pp.195-213.
- 김동환·김현식(2004). “한국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와 시스템 사고 : 약자의 피드백 루프와 티핑 포인트들의 인과성 검토”,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5(2), pp.5-31.
-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15(4), pp.61-84.
- 김용태(2021). “체험형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1), pp.51-75.
- 노영희·장로사·곽우정·노지윤·신영지(2019). “공유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K대학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1), pp.159-189.
- 노지윤·이상엽·노영희(2019). “창의·융합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 간의 역량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pp.447-472.
- 이상엽(2021). “소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분석과 극복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5(2), pp.215-252.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pp.61-74.
- 장지현(2017). “청소년행복도와 교육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21(1), pp.91-120.
- 조한준·최대수·성창수(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 15(2), pp.81-96.
- 최영출(2017). “영국의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제도와 제도효과 추정을 위한 정책시뮬레이션”, 「한국비교정부학보」, 21(1), pp.39-61.
- 최영출 · 김학실(2019).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기여도 분석방법론 적용: 아제르바이잔 사례”,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pp.393-414.
- 하규수 ·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pp.3406-3414.
- 허병준 · 이형용(2021).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업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1), pp.121-13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of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pp.442-453.
- Cho, Yong-Lan. (2018). “Activation Plan for Start-up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2(1), pp.155-178.
- Cho, Yong-Lan(2019).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the Successful Startup of University Students and Ways to Improve the Succes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3(2), pp.255-276.
- Cho, Yong-Lan(2020).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the Success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ethod”,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4(3), pp.153-172.
- Gnyawali, D. R. and D. S. Fogel(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pp.43-62.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pp.411-432.
- Lee, Sang-Yup(2019). “Development Strategies of Fiscal Programs for Universities in Korea: With focused on Estimation of Effect of

Restructuring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on University Competitiveness”,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5A), pp.54-67.

Shane, S. and S. Venkataraman(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217-226.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72-88.

[인터넷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Seq=842771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5&s=moe&m=0204&opType=N>). (검색일: 2021.04.30.)

뷰티누리,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94193/cat/10>). (검색일: 2021.08.09.)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970>). (검색일: 2021.08. 16.)

통계청 2021,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pi/1/1/index.action).

한국대학신문 UNN,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433>). (검색일: 2020.09.09.)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Beauty Field through System Dynamics Method*

Yoon, Mi-yun**

< Abstract >

In order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which facilitates technical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beauty field, we analyzed keywords from domestic and foreign papers for influencing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selecting variables and conducted policy simulations through System Dynamics to analyze factors that may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s. Simulation results show 1. A feedback loop to strengthe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programs; 2. A feedback loop to strengthen competitive spirit; 3. A causal relationship creating a virtuous cycle with a technology ability balance feedback loop. As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impro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increase, more young people will be drawn towards entrepreneurship. An entrepreneurial culture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entrepreneurship,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revitalization, system dynamics

투고일: 2021.08.09. | 심사완료일: 2021.08.11. | 게재확정일: 2021.08.17.

*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support project for senior researchers in humanities and society in 2019.

**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Care at Dongnam Health University

윤미연(尹媿妍) 현재 동남보건대학교 뷰티케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건국대학교에서 “화장품 첨가성분으로서의 바위취 추출물에 관한 연구” (2008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화장품소재개발, 세포생리활성, 피부미용 및 뷰티정책분석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비교론적 고찰을 통한 대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20)’, ‘Intramyocardial delivery of human cardiac stem cell spheroids with enhanced cell engraftment ability and cardiomyogenic potential for myocardial infarct repair(2021)’ 등이 있다. (dec1579@naver.com)